

지난해 대부 잔액 16.5조 “대부업 등록여부 꼭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등록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든 연체이자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사항을 15일 안내했다.

지난해 기준 대부 이용자는 250만명, 대부 잔액도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받았다면 모두 이자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을 상환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출계약서나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부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하면 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페리납품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T-50TH 태국 수출기.

KAI-공군

국산항공기 신뢰성 높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오는 17일까지 공군회관에서 공군군수사령부 주관으로 ‘제9회 K-TCG(국산항공기 국제기술협력회의) & SMG(비행안전관리자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공군, 방사청, KAI 등 관계자 100여 명과 국산 항공기 구매국인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태국, 필리핀, 세네갈 등 총 6개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공군은 지난 2009년 국제기술협력기구 ‘K-TCG’를 발족하고 가동률 상승, 정비시간 단축, 유지비 절감 등 축적된 국산항공기 운용효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국과 잠재적인 마케팅 대상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함께 우수성을 알리었다.

K-TCG 회의는 국산항공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비행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SMG회의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 조진수 교수의 ‘미래 군수환경 대비 항공무기체계 발전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KAI가 항공기 ‘총수명주기 관리 방안’과 ‘KF-X 개발 진행 현황’을 발표한다. 또 군수사에서는 ‘한국공군 항공기 수명관리 방안 및 주요 품질 개선 사항’을 발표한다.

/양성운 기자

2년 6개월 만에 공식석상 나온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리니지M 홀로서기… 글로벌 IP로 키울 것”

(지식재산권)

‘리니지M’ 1주년 간담회

PC ‘리니지’와 결별, 투트랙 전략 대만 이어 H·북미 버전 개발 계획 ‘블랙 플레이’로 새롭게 업데이트

“리니지를 벗어나 ‘리니지M’만의 오리진리티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겠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15일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작인 PC 리니지와 ‘리니지M’의 결별을 선언했다. 리니지M 1주년을 맞아 모바일 게임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인 것.

김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2015년 12월 리니지 출시 17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IP) ‘리니지’를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옮긴 게임이다. 지난해 6월 출시해 첫날부터 이용자 210만명, 매출 10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여간 꾸준히 엔씨소프트의 실적을 견인한 ‘효자’ 게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 진출 이후 현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리니지M 서비스 1주년 미디어 간담회 ‘YEAR ONE’에서 키노트를 발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에서도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김택진 대표는 “1여년 간의 과정을 통해 리니지M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20년 만에 리니지M만의 신규 클래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니지M의 독자 노선이 확실해진 셈이다.

엔씨는 출시 1년을 맞아 리니지M의 그래픽을 풀고화질(HD)급으로 전면 개편한다. 독자 콘텐츠로는 신규 클래스 ‘총사’를 공개했다. 총사는 리니지M에서 처음 추가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PC와 모바일 게임의 독자 노선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해의 시장도 본격 공략한다. 이날 엔

씨소프트는 일본, 중국, 북미 시장을 겨냥한 리니지M 글로벌 버전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니지M과는 다른 새 게임이다. 정확한 출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통상적으로 PC 온라인 게임보다 수명이 짧다는 우려가 있다. 20여년 이상 이용자들이 꾸준히 즐겨온 PC 리니지와 비교해 리니지M의 수명이 짧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성구 엔씨소프트 리니지 유닛장은 “리니지M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과는 유저 이탈 등에

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PC 리니지처럼 오래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리니지M의 경우 매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M의 독자 노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PC 리니지에서 넘어온 이용자들이 리니지M으로 끌고오긴 했지만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이용자가 많고, 2030세대의 젊은층이 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PC와 모바일 게임 모두 각자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변한 리니지M은 오는 30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리니지M의 첫번째 에피소드인 ‘블랙 플레이’도 업데이트하고, 리니지 IP의 대표 콘텐츠인 ‘드래곤 레이드’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이용자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블랙 플레이 업데이트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엔씨는 이날 리니지M 출시 1주년 기념 선물로 ‘TJ’s 쿠폰’도 공개했다. 이용자는 ‘TJ’s 쿠폰’으로 리니지M 출시 이후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강화 실패로 소멸된 아이템 중 하나를 복구할 수 있다. 모든 리니지M 이용자는 6월 20일에 쿠폰을 받는다

/김민진 기자 silkni@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中에 축구장 14개 규모 물류센터 개소

동북 3성 공략 박차… 북방물류 허브 선점 기대

선양에 ‘플래그십 센터’ 오픈
“동북 지역 1억명 소비자 위한
맞춤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것”

남북 화해무드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러시아,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북방지역 물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극동지역 거점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이들 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 개발을 위한 ‘신북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도 현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는 지난해 말 새로 출범한 ‘한·러 기업협의회’ 회장을 맡아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등을 아우르는 지역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봉장 역할도 맡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중국 랴오닝성 최대 도시이면서 성도인 선양에 ‘선양 플래



선양 플래그십센터 조감도.

그십센터’를 15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선양시의 회산경제개발구에 자리잡고 있는 플래그십센터는 부지면적만 9만7630㎡(약 3만평)로 국제규격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넓이다. 건축면적은 5만4200㎡(약 1만6400평)로 다양한 랙(Rack) 보관설비와 평치 보관구역, 냉장구역 등을 갖추고 있어 일 반화물 뿐만 아니라 냉장화물, 대형 중량화물 보관이 가능하다.

또 33대의 대형 차량이 동시 접근 가능한 독(Dock)과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

고 있다.

특히 반경 10km 이내에 자동차 제조, 부품 및 식품, 사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물류 수요가 많고 5km 이내에 고속도로가, 10km 이내에 철도가 각각 위치하는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해 물류센터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관계자는 “전통적인 공업 중심지로 자동차, 철강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선양을 중심으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지역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

서 “글로벌 물류 운영 노하우와 물류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같은 산업재뿐 아니라 동북 3성지역 1억명의 소비자들을 위한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최적화된 물류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아울러 자회사인 CJ로킨, CJ스피덱스가 갖춘 CJ로킨의 중국 전역 48개 거점과 50만㎡에 이르는 22개 물류센터, CJ스피덱스의 40여개 지역 물류센터와 4만여 협력사의 촘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국 내 사업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태 사장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경제권과 연결되는 경제, 물류의 요지인 동북 3성 지역 선제적 투자를 통한 현지 물류 사업역량 강화와 더불어 물류 네트워크 확대, TCR, T SR과 연계한 범 유라시아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개발 등 북방물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스타항공 인천~러 블라디보스톡 신규 취항

이스타항공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신규취항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6월13일부터 인천-블라디보스톡 주 3회(수, 금, 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운항스케줄은 인천-블라디보스톡 출발편(ZE991)은 오후 10시45분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새벽 2시

에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귀편(ZE992)은 현지시간 새벽 2시5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5시 도착한다.

이스타항공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인천-블라디보스톡 노선 두 번째 취항 항공사로 기존 대형항공사(FSC) 위주 독점노선에 신규취항하면서



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관광 수요창출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블라디보스톡은 평균 비행시간 약 2

시간 30분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면서도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신규취항을 기념하여 15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 일주일간 ‘인천-블라디보스톡 신규취항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 이벤트를 통해 탑승기간 6월13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인천-블라디보스톡 노선 항공권을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9만9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